

“빛나라 대나무!” 담양 대나무축제 5월 1일 화려한 개막

담양군, 야간경관과 체험·공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축제로 개최

올해 제25회를 맞은 담양 대나무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슬로건으로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밤까지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축제장 곳곳의 대나무 소망등을 비롯해 야간 조명 장식, 관방전 수상조명, 대숲 속 야간 영화 상영 등 야간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5월 1일 오후 5시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주차장 주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 퍼레이드와 윤도현 밴드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 드론 라이트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2일에는 정관스님과 기순도 명인이 참여하는 ‘맛이 죽(竹) 여주네’ 음식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3일은 군민의 날 기념식과 남진 콘서트,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뮤지컬 ‘베베핀’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새로운 담양 관광 캐릭터의 브랜드 선포식과 더불어,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포토존, 굿즈 전시 등으로 축제장 전역을 채워 다채로움을 더한다.

종합체육관에서는 25년간 군민과 함께 만든 축제 역사를 영상으로 송출하고 대나무 수장고에 보관된 축제품 전시와 대나무 워터를 조성하는 등 대나무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관방제림 일원에는 대나무 전통놀이, 뗏목 타기, 미꾸라지 잡기, 수상 워터런

등 역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 동선을 확장한 담빛음악당 일원에는 대나무 로봇 포토존과 에어바운스 놀이공간, 드론 제작 및 날리기 체험, 드론 스피드 대회 등을 배치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더했다.

죽녹원에서는 각종 공연과 더불어 축제 기간 처음으로 대숲 속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대숲 영화관’을 운영하며,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야간 개장도 밤 9시까지 이어간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동행축제’와 향토음식관을 운영해 지역의 맛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 기간 죽녹원(3,000원), 메타랜드(2,000원) 입장권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축제장과 읍내 상가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더욱 빛나는 야간 경관과 담양만의 특별한 체험이 더해져 담양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마을 맞춤형 컨설팅 본격 추진

전남 곡성군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일 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군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곡성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민원실, 인구정책과, 군민활력과, 농정과 등 관계 부서와 한국전력 곡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조직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발전소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 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할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출범 이후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 사업 시행지침 수립 이 전에 마을별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마을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운영 방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능 부지와 행위 제한 여부 검토 ▲예상 발전량과 사업비 분석을 통한 수익성 검토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마을 맞춤형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지난 9일 발대식에서 사업 설명을 맡은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지역에너지 모델”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 마을의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더 많은 마을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성군 “장성소방서, 지역 인재 육성 동참”

포상금, 직원 정성 모아 (재)장성장학회에 329만 원 기탁

장성군이 16일 장성소방서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탁식을 갖고 지역 인재 육성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날 장성소방서는 2025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100만 원에 직원 41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더해 총 329만 원을 재단에 전달했다.

최동수 장성소방서장은 “장성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에 더욱 관심을

을 갖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중 장성장학회 이사장은 “장성소방서의 장학금 기탁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기탁금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장성장학회는 지금까지 2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 육성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에는 기금 100여 원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기반 마련



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주거비 실비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완료... ‘청정 고흥’ 사수

소·염소 등 우제류 4만 8천여 두 대상,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족 전염병 없는 ‘청정 고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관내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맞춰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대상 규모는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 1,264호, 총 48,199두에 달한다.

군은 접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를 대상으로 공수의를 파견해 백신 접종 시술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 자체 예산 1억 2,6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 100두 이상 전업농가까지 공수의 접종 지원 범위를 대

폭 확대했다.

이는 고품화된 축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규모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종 누락 등 방역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군의 강력한 방역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고흥군은 일제접종 이후에도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임신 말기나 질병 등으로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 개체는 추후 보강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함평군,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성료

공공근로·지역공동체 분야 근로자 100여명 대상

전남 함평군이 2026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17일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이 전날 오후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리고,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이수진 차장이 강사로 나서 녹지관리 업무 및 청소 업무 등 분야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 강의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자리사업 참여자들도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 참여자를 공모 모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화순군, ‘2026년 만원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

3월 23일~4월 3일 접수... 100호 공급, 교통·생활 인프라 우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7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6년 만원임대주택’ 2차분 입주자를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부24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난 3년간 총 300호 모집에 총 2,605명이 지원해 2023년 18대1, 2024년 12대1, 2025년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청년 153세대와 신혼부부 124세대가 입주했다.

이번 2026년 2차분 모집은 신규 물량

100세대(청년 50세대, 신혼부부 50세대)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 전까지 전입이 가능한 예정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우선 순위 기준에 다자녀(2인 이상) 항목을 추가했으며, 우선순위 대상자에게는 24평(10세대) 추첨권을 우선 부여한다. 또한 모집군별 추첨 후 미달 물량은 다른 모집군으로 재배정해 선발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화순군 화순읍 광덕지구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마트·병원·관공서·학교 등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이 우수해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다.

화순/김중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 책감치럼
 - 타성에 젖지 않을 것.
 -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 너의 우주와
 - 소중함을
 -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 작지만 믿을 수 있는 꿈같은 것.
 - 있는 건데, 말이다.
 - 더 크게 웃을 것.
 - 우어도 보는 것.
 - 누구 뭐라고 해도 말야할 것.
 - 잠시... 쉬우고
 - 평범한 것은
 - 가장 아름다운 사람.
 - 기쁜 사람,
 -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 건 건...
 - 그 자체만으로도
 - 좋은 거라면
 -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